기관지낭종의 1예 보고

연 세 의 대 흥 껍 내 과

이 원 영 · 함 성 숙 · 홍 천 수
김 형 덕 · 김 기 호

—Abstract—

A Case Report of Bronchogenic Cyst

W. Y. Lee, M. D., S. S. Ham, M. D., C. S. Hong, M. D.,
H. D. Kim, M. D. and Kiho Kim, M. D.

Chest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The bronchogenic cyst was reported at first by Morgagni in 1769. Lederer et al reported the incidence of bronchogenic cyst which was 5 per 100,000 young men without any subjective symptoms of it.

In Korea, Ham reported the suggestive bronchogenic cysts of two case in 1967, and Park reported another case in 1970 at Yonsei University Medical Center.

This 21 year-old woman have had intermittent cough with foul odored sputum expectoration and left side chest pain for 10 years. Seven years and 5 years ago, she was diagnosed and treated of bronchitis at local clinic. Eight months prior to admission, she was suspected of lung abscess on her chest x-ray film and treated with slight improvement. One month prior to admission, above stated symptoms were noted again.

On admission, there were noobjective signs at all. On 7th hospital day, the left lower lobectomy was performed under the impression of pulmonary cyst on her bronchogram.

The congenital bronchogenic cyst was confirmed by Pathologically post-operatively.

폐의 선천성 낭종은 1769년 Morgagni¹⁾에 의해 처음 보고 되었으며 1925년 Koontz²⁾가 보고한 이래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병의 발생 빈도는 Edwards와 Ehrlich³⁾에 의하면 무증상인 청년들에서 100,000명중 5명을 발견 할수 있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7년 본교실의 함⁴⁾이 선천성으로 간주되는 폐낭 그예를, 1970년에는 본원의 박등⁵⁾이 생 후 14일째 되는 남아에서 1예를 보고 한바가 있다.

폐낭의 임상적 의의는⁶⁾ 첫째로 점차적인 낭종의 팽창으로 정상 폐실질의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 둘째로 세균감염에 의한 염증 (폐농양 증세), 세째로 주위 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과 각혈, 네째로 늑막하 낭종이 늑막강내로 터져서 병발하는 기흉등을 들수가 있다.

<증 예>

환자는 21세 여자로 10년 동안 간헐적인 화농성 객담과 해소, 수개월 동안의 좌측 견갑부 통증과 좌측 상흉부의 통증을 주소로 하여 입원 하였다. 과거력을 보면 상기 증세로 7년전과 5년전에 각각 기관지염으로 진단 받은 적이 있고 입원 8개월 전에는 폐농양이란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아 효과를 보았으나 입원 한달 전 부터 다시 증세가 재발 하였다. 결핵, 축농증, 충치등의 소견은 없었으며, 가족력에도 특기 사항이 없고 이학적 소견은 정상 이었으며 혈액검사 대소변 검사 등도 정상이었다. 튜버큘린 반응은 양성이며, 폐 및 간 지스토마의 피내반응은 음성 이었다. 객담검사에서 화농균, 결핵균, 폐지스토마 충란은 모두 찾아 볼 수 없었다.

단순평면 흉부 X-선 사진을 보면 좌측폐야 하부에 심장 음영과 중복되는 낭형의 음영을 볼 수 있으며, 좌측 측면 X-선 사진에 좌폐 하엽의 상부에 낭형음영을 볼 수가 있었다. 기관지 조영법으로 좌하엽 상기관지와 연결되어 있는 폐낭을 뚜렷이 볼 수가 있었다. 수술전 기관지경 검사에서는 특별한 소견을 볼 수 없었고, 입원 7일째에 좌측폐 하엽절제술을 받았던 바, 절제된 조직에서 부패된 분비물로 충만 되어있는 10×6×4cm 크기의 폐낭이 발견 되었다. 이 낭은 좌측폐 하엽 상기관지 및 좌측폐 하엽의 posterior basal segment 기관지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 병리조직 검사에서 이 낭 주위에 연골조직의 혼전은 없었고, 점막은 기도 점막에서 볼 수 있는 섬모성 가성중층 원주상피세포(ciliated pseudostratified columnar epithelium)로 되어 있으며 만

성염증에 의한 squamous metaplasia가 있는 부위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 낭포 벽의 점막하 조직에는 기관지 점막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점액선이 있었다.

REFERENCES

1. Morgagni J. B. : *The seats and cases of disease investigated by anatomy (cited by Spancer 1962)*
2. Koontz A. R. : *Confenital cysts of the lung*. Bull Johns Hopkins Hosp. 37:340, 1925.
3. Edwards H. R. and Ehrlich David: *Examinations for tuberculosis* JAMA 117:40, 1941.
4. 함성숙 : 결핵 및 호흡기 질환 27:45, 4. 1967.
5. 박경숙등, 소아과 Vol. 13, No. 8:21, 1970.
6. Robbins: Pathology 3rd edition.